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곳 필리핀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나눕니다.

방과후 수업

가장 큰 감사는 3년 이상
기도해 온 방과후 교실
사역이 10월에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학습 환경이 어려워
유급된 아이들, 그리고
교회 스텐들의 자녀 등
총 11 명의 아이들과
함께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또한 키즈워십에서 보내주신 영어 찬양 교재로 인해 아이들이
찬양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와 말씀을 배우는 은혜도 누리고
있습니다.

3년이란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학습 의욕이 없던 아이들이 문제를 풀며 칭찬받는 기쁨을
배우고, 글자를 스스로 읽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 속에서 이
사역이 단순한 공부방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과 복음의 통로임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장학생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며 봉사하는 모습 속에서 다음 세대 믿음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학사 사역의 시작 - 상처받은 한 영혼을 품다

한 학생이 가정에서 양아버지와 삼촌에게 상처를 받아
더 이상 집에서 지낼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 학생을 외면할 수
없었고,



그때부터 학사 사역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 년 동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던 중,
그 학생이 성년이 되는 해 10 월부터 선교센터에서 함께
지내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학사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선교센터에서 생활하며, 새벽기도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공부와 생활 속에서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단순히 숙식을 제공하는 일이 아니라, 이
학생의 영적·정서적·생활적 회복을 세워가는 '훈련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처 속에서 흔들리던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해 가는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청년 캠프 - "서번트 리더십"

필리핀 만성절(한국의 추석)을 맞아
'서번트리더십'을 주제로 한 청년 캠프가 열렸고, 총
20 개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청년들도 참석하여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깊이 배우고,
말씀과 찬양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강남 연동교회 및 황인자 포장 연구소와 함께한 특별 세미나

홍정근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황인자 포장 연구소
이사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체인지 업' 세미나와
리본·포장 클래스'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새가족들과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여 은혜로운 시간을 누렸고,
특히 리본과 포장 수업은 대부분이 처음 접해보는
과정이라 성도들이 매우 즐거워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은 손동작 하나에도 집중하며 웃음이 가득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스텝들을 위한 이너힐링(내적치유) 세미나

교회 스텝 8 명을 대상으로 이너힐링(내적치유)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사역의 깊은 피로와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먼저 마음이 회복될 때 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음을 다시
느꼈습니다.



PCK 총회파송 선교사 영입훈련을 통한 은혜

총회 파송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던 중, 지난 8 월 말 감사하게도 특별영입훈련의 기회를 허락
받았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사역의 방향을 다시 정립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다잡는 귀한
훈련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제목

1. 방과후 수업을 통해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2. 1)신학교 진학을 결정한 학생들을 위한 학사(공동체 훈련)사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학후보생: BILLY, IRENE, JOHN PHILIP, JOHN PAUL)
2)신학생들을 위한 물질과 기도의 후원자가 연결되도록
3. 사역에 필요한 재정이 하나님의 때에 부족함 없이 채워지도록
4. 성도들을 위한 계속되는 이너힐링 (내적치유)세미나를 통해 성령님을 경험하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5. 방태남,김미나 선교사가 영적,육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수 있도록
6. 세아와 은유가 준비하는 공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 지도록

후원계좌: 경남은행 2070006020600 방태남

2025 년 11 월 방태남 김미나 (세아, 은유) 선교사 가족 올림